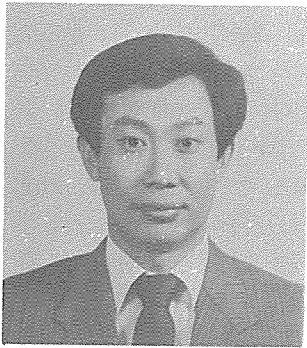


동유럽 3국 치과대학 순방기

—그리스·아테네/불가리아·소피아/터키·이스탄불—

H.P.I. 한 국 회
부회장/이 상 필



1991년 11월 28일 오전 타이 항공 TH 629로 김포를 출발했다. 이번 여행에는 김일봉교수, 대구 박창석원장 및 필자 3인이 동승했다.

출발 전 공항 커피숍에서 김일봉 교수의 인생철학을 듣는 가운데 많은 것을 느낄수 있었다. 역시 기회는 찾는 자에게 주워진다.

이번 여행이 필자에게는 열번째 해외여행이 된다. 언제나 바쁘고 시간에 쫓기면서도 귀국할 때는 무언가 큰 것을 얻고 들어간다는 뿌듯한 느낌이 든다.

며칠 전 충현교회 신성중 목사님을 통해서 감명깊게 들은 "인생의 다섯가지 신기루"라는 설교가 생각난다.

하나님과 주위 모든 분에게 항상 감사한다. 2시간 후 홍콩 공항에 도착했다. 홍콩은 비좁은 땅 때문에 산위까지 30층정도의 아파트가 즐비하여 국제도시답게 아름다운 고층 건물이 많이 보인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22°C의 상쾌한 날씨이다. 잠시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약 3시간만에 방콕 공항에 도착했다. 32°C의 한여름 더운 바람이 코를 막는다. 서울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적항노선이 없어서 방콕에서 다시 비행기를 바꿔 타야한다. 방콕에서 대기하는 9시

간을 이용하기 위해 공항에 여행자 안내소의 소개로 한사람당 50 불씩 내고 4시간용 방콕 투어를 부탁했다. 교통 혼잡으로 시내 중심부까지 무려 1시간 30분이 걸렸다. 이곳 방콕도 심한 매연으로 교통순경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이 보인다. 국회의사당, 금으로 장식된 사원 등 몇곳을 관광했다. 바빠 서둘러 아테네행 타이 항공을 탑승했다. 몇 백명이 앉아있는 비행기내에는 동양인 승객이 우리 셋뿐이었다.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는 방콕을 출발해서 아테네를 거쳐 비엔나를 가는 것으로 대부분 희랍, 체코, 오스트리아인이다. 우리는 앞쪽 금연석에 앉아 있었는데 앞쪽의 희랍인 노부부가 맛있게 담배를 피워댄다. 그러자 내옆에앉은 예쁘장한 오스트리아인 아가씨도 계속 하얀 연기를 퐁어댄다. 휴가차 혼자서 청바지 차림으로 방콕에 여행왔다 가는 길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금연석에서 흡연때문에 한 부인이 승무원에게 항의하자 남자 승무원이 그리스인(오스트리아인 같기도 함) 부부에게 통사정을 하나 대부분의 사람이 막무가내로 피워댄다.

공중도덕은 완전히 제로이다. 몇 십년 전에는 동양인들이 무식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Orthopedic force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으며 Growth and Development 및 기초 의학 분야의 연구가 한층 눈에 띄었다. 그리스 국제교정학회는 2회로써 이제 발전 초기 단계이다.

우리와 학술 교류가 거의 없는 이곳 동구권 국가들과 많은 왕래가 있음으로 써 국익 신장 및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여 공중 도덕심이 없다고 이들이 비아냥 거렸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부터 방콕에서는 대부분 동양인인 모든 승객들이 승무원 지시에 따라서 서로간의 예의를 지켰는데 여기는 뒤바뀐 느낌이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이들보다 충분히 앞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위안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I. 그리스 아테네 치과대학 및 국제교정학회

방콕에서 출발한 지 약 11시간 후 비행기는 아테네 공항에 도착했다. 이곳시간으로 11월 29일 새벽 5시, 한국과 7시간 차이이다. 입국 수속은 5분 정도로 아주 간단해서 관광국의 풍모를 느끼게 한다. 밖에 나오니 그리스 대사관의 미스터. 이(李)가 반가히 맞아 준다. 그리스는 13km²의 면적에 1,000만의 인구를 지니고 GNP는 4,000불 정도이다. 그리스 국제교정학회가 개최된 아테네는 450만의 대도시로써 많은 회람 문명의 유적을 지닌 동유럽 항공 및 해양 교통의 중심지이다.

그리스에는 아테네와 테살로니가 두개의 치과대학이 있으며 매년 300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배출된다. 총 치과의사수는 1만명 정도로 인구 1,000명당 1인이 되어 상당한 과밀상태이다.

그리스는 1980년 초부터 사회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1989년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NATO의 일원국이 되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를 거친 나라의 특징은 의사의 과잉양성이다. 따라서 의사는

질보다 양에 치중한 정책이 유지되어 온 셈이다.

힐튼 호텔에 여장을 풀고 아테네 국립 치과대학을 방문했다.

그리스는 개인은 부유한데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국가는 가난하다. 대학에 들어서니 서울 치대의 옛 소공동 건물을 연상시킨다. 아테네 치과대학은 아직 대학원이 없으며 92년 부터 개설예정이라 한다. 현재의 낡은 치과대학 옆에 완공된 신축건물이 대학원 및 부속 병원이다. 교정과 주임교수인 Dr. Haralabakis가 반가히 맞이한다.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교정학을 전공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개최될 제 2회 그리스 국제교정학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보존과 주임교수인 Dr. Toytoyntzakhe의 안내로 대학병원 진료실을 방문했다. 소아치과 및 보존과가 비교적 활동적이고 유니트 체어도 신형으로 잘 설비되어 있다. 대학원이 없었으니 교정과 진료실은 아직 없고, 대학에서

removable appliance중심으로 강의만 진행한다. 그러나 개원가에게는 여러 Fixed appliance가 상당한 수준으로 시도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미국 및 서유럽에서 교정을 전공한 치과의사 들이다. 보존과의 진료실에 들어가니 시설은 최신형인데 의사들은 대부분 서서 또는 구부린 채 진료를 하며 공간 배치 및 운영도 비효율적이다. 우리의 20년전 모습이다. 이곳에서 HPI (Human Performance and Informatics) 개념은 전혀없다. 앞으로 이곳에서 HPI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오후 늦게 아테네시 중심부 언덕에 있는 아크로 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방문했다. 거대한 둥근 기둥을 바탕으로 위압감을 주는 파르테논 신전을 볼 때 옛 선인들의 민주주의 의회 및 토론과 그 당시 발전된 학문의 모습을 보는듯하다. 그리스 박남균 대사의 호의로 80km 떨어진 수니온 곳의 포세이돈 신전을 방문했다.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이 신전은 지붕



그림 1.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은 없어지고 웅장한 기둥이 12개 남아 있는데 석양의 바다 빛깔과 조화되어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이다.

아침 식사후 로비에서 Dr. McNamara, Alexandre, Wilma Simoes등 그리스 국제 교정학회 연자들을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회 장소인 Evgenidion Idrima는 그리스 양식의 흰색 건물이다. 프랑스 Alexandre 교수의 "Interindividual variations in human tissue-level reactions to functional appliances"라는 주제로 교정학회가 시작되었는데 참석자는 약 500명 정도이며 동양인은 우리 셋뿐이다.

연자인 Alexandre교수는 필자가 참석했던 지난 9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 치과교정학회 개최식 주 연자였기 때문에 한층 친밀감이 있었다.

잠시후 미시간 대학 David Carlson교수의 "The Role of the



그림 2. 사도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고린도에서

Lateral Pterygoid Muscle in Condylar Growth: Clinical Impications" 및 영국 Eastman Dental Hospital에 근무하는 Dr. Harry의 "Facial Disharmony in the growing face 8-16 years", 덴마크 "Royal Dental College" 교수인 Dr. Athanasiou의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Dentofacial Asymmetries. The Contribution of Dentofacial Orthopedics" 등이 진행되었다.

다음 날 12월 1일은 미시간 대학 교수인 Dr. McNamara의 "Modifying the Growth of the Orthodontic Patient"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계속되었다.

McNamara교수는 사단법인 한국 치과 교정 연구회에서 초청했던 연자였고 최근에 여러 학회에서 만난 덕분에 한층 친분있는 강의가 되었다. 그 외에도 포르투갈 Porto대학교수인 Dr. Neves, 프랑스 국립 보건원의 Dr. Stutzmann, 파리 V대학의 Gaspard교수, 브라질 상파울루 Wilma Simoes교수의 열강과 토론이 있었으며 강연장 밖 복도에는 15개 회사의 교정재료 및 기구 전시회가 있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Orthopedic force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으며 Growth and Development 및 기초 의학 분야의 연구가 한층 눈에 띄었다. 그리스 국제교정학회는 2회로써 이제 발전 초기 단계이다.

우리와 학술 교류가 거의 없는 이곳 동구권 국가들과 많은 왕래가 있음으로 써 국익 신장 및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림 3. 그리스 국제교정학회 회장의 앞에서 필자(좌)와 박창석원장.

II. 불가리아 소피아 치과대학

오후에는 아테네에서 130km 떨어진 성서 유적지 고린도를 방문한 후 다음날 아침 불가리아 LZ 발칸항공으로 아테네를 떠나 소피아로 향했다. 약 1시간후 도착한 불가리아 소피아 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지방 완행버스 대합실을 연상케 할 만큼 초라한 모습이다. 입국시에는 별 절차없이 손쉬운 통과를 하고 밖에 나오니 교민 이상존씨가 반가히 맞아준다. 약 30분후 소피아 중심가에 있는 Vitosha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불가리아는 11만 km²의 면적에 900만명의 인구를 지니며 GNP는 1,000불 정도이고 수도 소피아에 120만명이 살고 있다. 불가리아는 오랜 친소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89년부터 민주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되어 요즘이 전환기이다.

소피아 문화궁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았다. 김좌수 대사께서 반가히 맞아 주신다. 함께 점

심을 먹으며 첫 대사관 설치의 에로사항 및 한국기업 진출, 학술교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90년 4월부터 한국과 불가리아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한·불 사이에 급성장한 교류를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에는 5가구의 교민과 외국어 대학 노어과를 졸업 후 불가리아 문학을 공부하는 몇 사람의 한국 유학생이 전부이다.

소피아에서 130km 떨어진 2,000m산중숲속에 있는 릴라의 사원을 방문했다. 18세기에 세워진 불가리아 대성교 수도원으로써 수많은 벽화와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다음 날 불가리아 소피아 치과대학을 방문했다. 의과, 치과대학이 함께 있으며 서울대학 병원 규모의 부속병원이 함께 있다. 국립 소피아 치과대학 학장인 Stratiev 교수의 안내로 불가리아 치과대학 현황을 파악하고 부속병원 각 파트를 둘러 보았다.

불가리아에는 치과대학이 2개 있으며 모든 학비는 무료이다. 총 치과의사는 6,000명 정도로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과잉 상태이다. 교수들의 한달 급여가 일반 노동자보다 약간 높은 120불 정도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Stratiev교수는 자신도 해외에서 학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한달 급여는 외국 하루 호텔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성급 웃는다.

그러나 교수들의 학문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연구열은 높히 살만하였다. 그 이유는 소피아 치과대학 모집 정원이 200명인데 이중 받은 그리스 및 독일 근중등에서 외국 유학생으로 채워지며 불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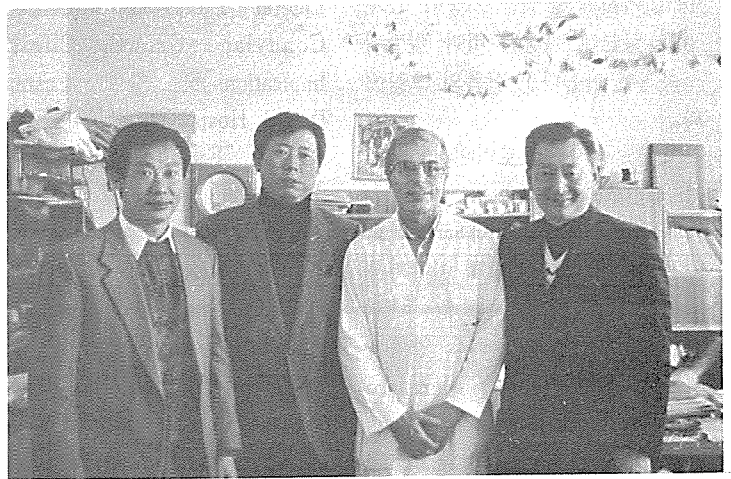


그림 4. 불가리아 소피아대학에서 Tsaribashev교수와 함께

아인은 학비가 무료인데 유학생은 매년 6,000불 정도의 학비를 지불한다. 즉, 이 비용이 대학 및 부속병원의 운영비로 이용된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려면 학문적 수준이 높아져 있어야 한다. 외국 유학생은 불가리아 어문(語文)대학에서 1년 과정을 마친 후 시험없이 대학입학이 허용된다. 대학교육은 예과 2년, 본과 3년으로 되어있으며 졸업후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치과 의사가 된다. 구강외과와 교정과는 다시 3년을 수련받고 전문의 시험에 통과해야 되며 교정 전문의는 200명 정도이다. 성형외과는 구강외과 전문의 취득후 추가로 2년을 수련받게 된다. 치과대학 여러 분야에서 특히 구강외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여러 서유럽국가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기획분야가 하나의 교실로 독립되어 있으며 Dr.가 아니고 Ph.D소유자인 Tsaribashev 교수가 Dental Health Care 및 대학원 교육, 조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예과 2년 본과 3년의 이곳 치과대학 입학은 경쟁이 치열해서

10:1에 달하고 불가리아 국회에서 의과대학보다 치과대학 인기가 좋아 예과에서 본과에 올라올때 상당수의 의과대학생이 치과대학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치과대학 부학장이며 교정과 주임교수인 Dr. Moutafchify가 귀뜸한다.

1992년이 치과대학 창립 50주년으로 여러 학술대회와 행사가 개최 될 예정이라며 참석을 부탁 받았다.

동유럽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바라볼때 우리 처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우러난다.

III. 터키 이스탄불 대학

소피아 공항을 출발하여 1시간 후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터키는 75만km²의 면적에 5,500만의 인구를 지니고 GNP는 2,500불정도이다. 수도는 내륙 중심에 있는 앙카라이며 실제 무역 및 경제 중심지는 이스탄불이다. 이스탄불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이며 전에는 콘스탄티노폴, 비잔틴으로 불리웠고 동로마 제국 및

오스만 터키의 수도였다. 고대 헬레니즘 문화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소문에 들은 그리스보다 더욱 가치를 느끼게 하며 나라 전체가 하나의 유적지이다. 첫 방문처로 시 중심부에 있는 돌마바체궁전에 도착했다. 이는 1880년에 세워진 초호화판 궁전으로 14톤의 금이 사용되었으며 세계열강이 오스만 터키의 위압에 눌려 바친 값진 보물로 가득차 있었다.

제 2궁전 이었던 박물관을 방문했다. 내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및 성서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다리, 이슬람 마호메트의 콧수염등이 있었으며 단일 박물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터키인은 90%가 회교도로써 종교적 영향때문에 술집이나 유흥가가 없다. 동로마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기독교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5세기에 세워진 소피아성당과 회교 영향에 의한 초대형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가 위치하고 있다.

이스탄불에서 개업중인 교정 전문의 Dr. Qulhaci의 안내로 이스탄불대학교 치과대학을 방문했다.

터키에는 8개의 치과대학과 1만명의 치과의사가 있으며 이스탄불에 3,000명의 치과의사가 집중되어 있다. 여권신장(女權伸張)덕분에 치과대학생의 60%는 여학생이다. 대학까지 모든 교육은 무료인데 특히 치과대학은 입학이 어려워 이스탄불 치과대학은 200명 모집에 1만명이 지원해서 50:1의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었다.

이스탄불 대학교는 1885년 설립된 역사깊은 대학으로 치과대학은 3년이며 졸업후 전문의 과정은 3

년이나 보통 4-5년이 걸린다고 한다. 교정과 주임교수이며 여자 치과의사인 Dr. Ugur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비한 case report를 보니 아직은 우리가 20년 전에 사용했던 Jarabak system을 이용하고 있었다. 교정 치료비는 1,000불~2,000불을 받으며 발치 case는 50~60%정도이다. C-II Div.I Overbite case가 많은데 이는 터키인이 Oriental과 Western의 혼혈때문으로 생각된다.

진료실을 방문하니 주임교수의 위치는 대단한 권위가 있었으며 비교적 신형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및 진료자세는 미흡하여 fixed appliance선택도 문제가 있다. 이 지역도 HPI교육과 학문적인 교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우리도 다른나라에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베푸는 여유도 있어야 하겠으며 저력있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볼 때 자부심을 느낀다.

이번 여행에 각별히 도움을 주신 김일봉 교수와 그리스 박남균 대사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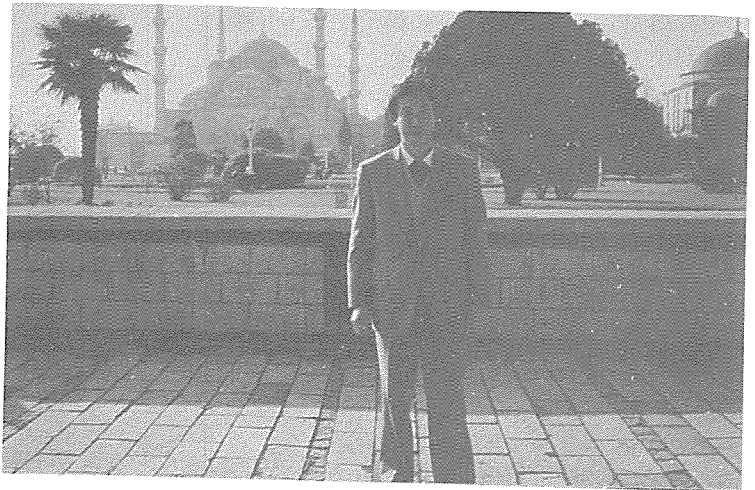


그림 5. 이스탄불 돌마바체 궁전에서의 필자



그림 6. 터키 이스탄불치대 교정과에서 Dr. Ugur교수와 함께